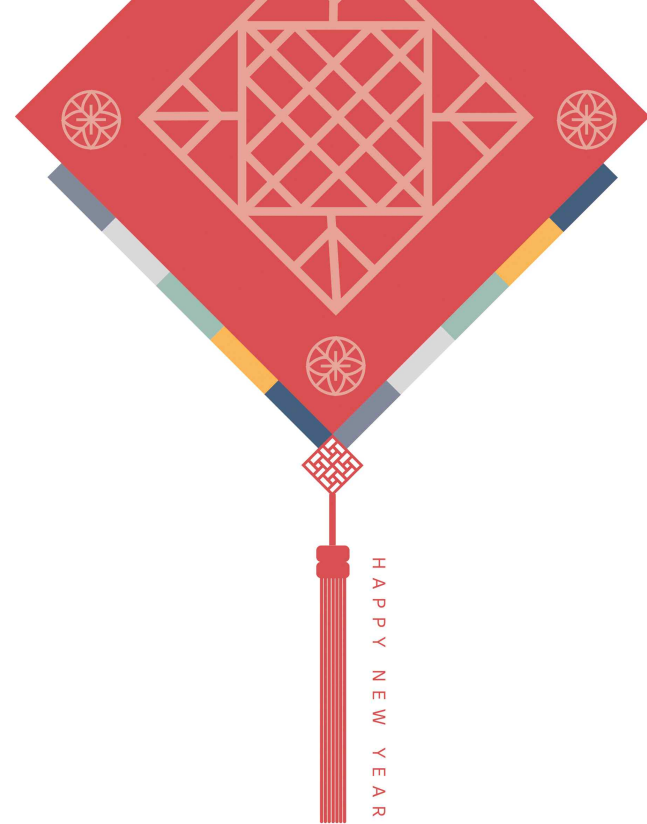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488장

1.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2.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렘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3.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4.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뵈올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엿이 바로 서리라
- 후렴.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384장

1.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하리라(x2)
2.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x2)
3.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 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x2)



2023

설 성묘예배 순서지

| 행복하고 복된 설날 되세요 |





설 성모 예배

묵상기도 다 같이

찬 송 488(통539)장 다 같이

기 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창세기 3장 19절 말 은 이

19. 네가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 씬 흠에서 흠으로 말 은 이

기 도 설 교 자

찬 송 384(통434)장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흠에서 흠으로

1. 어린아이를 통해 바라본 인간의 본성

아이들을 보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이 필사적입니다. 엄마의 아픔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배고픔의 욕구를 채워야 합니다. 조금 자란 아이들을 보십시오.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누어 먹어야 하는데, 오른손에 쥐고 입에 하나 가져다 물고 또다시 왼손에 하나 잡고 먹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이 세상 것에 가지고 있는 애착이 강합니다. 이 애착심 때문에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오늘 고인의 무덤 앞에 선 당신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2. 흠으로 돌아가는 존재

하나님은 아담을 흠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 2:7). 물론 다른 짐승들도 동일한 흠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흠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창 2:19). 비록 동물과 인간이 흠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만족을 포기하였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좀 더 초월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 결과는 오히려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인간이 범죄 한 결과로 다가온 가장 큰 슬픔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은 이제 죽음을 맞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게 되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을 거부하는 인간들의 몸부림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흠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그늘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흠으로 왔다가 흠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인간은 연약함과 한계성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짧은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불쌍한 존재는 없습니다.

3.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네게 복이라

본래 우리는 흠으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존귀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호흡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탕자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들의 독립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멀리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처량함과 피곤함만 엄습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의지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자원을 의지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한 번 임하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고백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실 분, 나에게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주시는 분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나의 소망과 행복의 근거입니다.

오늘 고인의 무덤 앞에서, 흠에서 왔다가 흠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새 출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